

이달의 초점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 연구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 이다미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

| 정세정·신영규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비교: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기획의 글 (Foreword)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2024년 9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복지국가 환경 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이다.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사회지출을 늘리고 다양한 사회정책을 확대하였지만, 21세기 들어 거대한 사회적 전환이 발생하면서 그 기능과 역량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 디지털화와 자동화,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 등이 최근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주요 환경 변화라는 점에 이견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응 노력에서는 국가와 지역마다 큰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황 변화와 관련 정책에 대한 집단과 개인들의 인식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과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토리노공과대학, 서식스대학교, 로스킬레대학교 등과 함께 1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23년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 협력을 통해 공통 설문지가 구성되었고, 2024년 상반기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10개국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달의 초점은 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고령화, 디지털화와 자동화,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에 관한 시민 인식을 국가 간 비교하는 글 세 편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들이 비교사회정책 관점에서 한국 시민 인식의 양상과 특징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